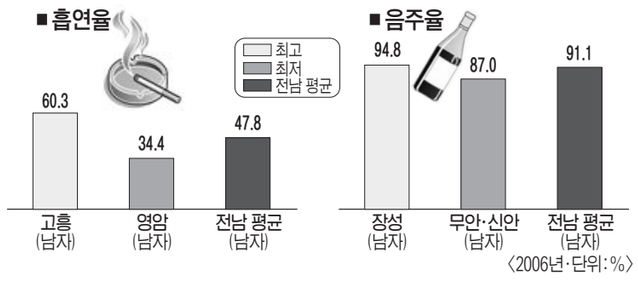
흡연율-고흥, 음주율-장성 최고

〈남자 60.3%〉 〈남자 94.8%〉

남자 31% "음주운전 경험있다"

■전남도 20대 이상 '건강행태 조사'

고혈압 유병률 광양 가장 높아



▲유병률(有病率)=어떤 지역, 어떤 시점(특정일)에서 조사한 환자의 수를 해당 지역 인구 수로 나눈 비율. 보통 인구 1천 명 당의 수치로 표시하며, 만성질환의 만연 정도를 알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흡연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고흥, 그리고 음주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전남도 건강증진지원사업단'(단장 전남대 의대 이정애 교수)이 지난 한해 동안 전남도 내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남녀 1만7천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고흥군은 남자 10명 가운데 6명(60.3%)이 지난해 말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군은 34.4%로 흡연인구가 가장 적었으며, 전남 전체적으로는 47.8%의 흡연율을 기록했다. 전남도 내 전체 여자 흡연율은 1.8%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남자 음주율의 경우 장성군이 94.8%를 기록,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무안군과 신안군이 각각 8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자 역시 장성이 97.7%로 가장 높았고 광양시가 77.8%로 가장 낮았다. 전남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91.1%, 여자가 86.8%의 음주율을 기록했다.

음주운전의 경험은 남자 10명 중 3명(31%)이 '있다'고 답했으며, 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21.1%가 음주운전을 해봤다고 응답했다. 특히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남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1년에 6번 이상했다는 응답자가 6.8%를 차지했다.

대표적 성인병인 고혈압의 경우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양으로, 남자는 39.1% 그리고 여자는 31.6%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곳은 남자의 경우 나주(14.8%), 여자는 영암(11.4%)이었으며, 전남 전체적으로는 남자 24.9%, 여자 21.2%로 조사됐다.

또 다른 성인병인 당뇨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비율은 남자의 경우 여수가 8.1%로 가장 높았으며, 함평이 2.9%로 최저수치를 보였다. 여자는 구례가 7.1%로 최고, 무안이 1.7%로 최저였다. 전남 전체의 당뇨진단 비율은 남자 5.0%, 여자 4.2%였다.

관절염 진단을 받은 비율에서는 남자의 경우 영암군이 10.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고흥군이 3.1%로 가장 적었다. 여자는 신안군이 23.0%로 최고, 완도가 9.8%로 최저였다. 전체적으로는 남자 5.7%, 여자 14.7%를 기록했다.

성인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시한 사람의 비율은(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장흥이 24.0%로 가장 높았고, 함평이 6.5%로 가장 낮았다. 전남 전체로는 13.7%에 그쳤다.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부분에선 남자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2.7%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좋다'가 34.7%, '나쁘다'가 13.9%를 차지했다. 여자는 45.6%가 '보통', '좋다'가 28.0%, '나쁘다'가 20.0% 순이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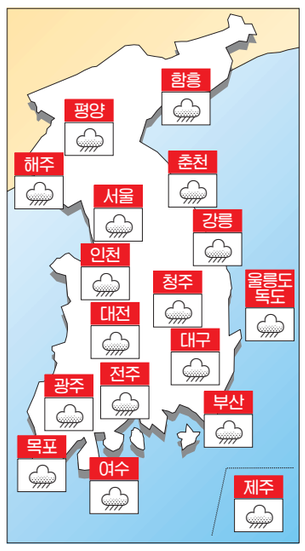
돌풍 동반 비 조심

7월 10일 (음 5월 26일) ◇전국날씨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2~27℃
목 포	흐리고 비	21~25℃
여 수	흐리고 비	20~24℃
완 도	흐리고 비	20~24℃
구 례	흐리고 비	22~27℃
해 남	흐리고 비	21~25℃
장 흥	흐리고 비	20~25℃
고 흥	흐리고 비	20~25℃
순 천	흐리고 비	21~27℃
영 광	흐리고 비	21~26℃
진 도	흐리고 비	21~25℃
전 주	흐리고 비	21~27℃
남 원	흐리고 비	20~26℃
흑산도	흐리고 비	19~24℃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 09:39 22:46 썰물 〈 02:55 15:11
여 수 밀물 〈 04:36 17:58 썰물 〈 11:00 —:—

▲해뜸 05:26 ▲해짐 19:49 ▲달뜸 01:01 ▲달짐 15:4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 씨						
최저/최고	22/28	21/29	21/28	22/29	23/26	22/29

선생님되기 까다로워진다

2009년부터 임용시험 3단계로

논술·면접시험 비중 대폭 강화

2009학년도부터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면접시험 비중이 대폭 강화되는 등 교원 선발 체계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로 복잡해진다.

1차 필기 100점, 2차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 50~60점이던 시험 단계별 배점도 1차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2차 논술형 필기시험 100점,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수업능력 및 실기·실험평가 100점으로 바뀐다. 50~60점에 불과하던 논술 및 면접·실기시험 배점이 200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교사의 자질과 교직수행 능력 평가 비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필기시험은 1차에서 교육학과 전공, 2차에서 전공(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실기시험은 현재까지는 예체능 교사 응시자들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체능뿐 아니라 과학 교사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실험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을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에서도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는 외국어 면접을 봐야 하며 초등교사 임용시험 면접에도 영어 면접시험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풍요 기원 '백중놀이' 9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 용전동 전통공예문화학교 인근 들판에서 펼쳐진 '백중(百中·음력 7월 보름) 놀이' 행사. 농립(農笠)을 쓴 '(사)지산 용전들소리' 보존회원 65명이 허리에 도롱이를 차고 풍요를 기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교수 포함 회원 8천명 스와핑 사이트 적발

16명은 자녀 동반 '스와핑 여행'도

수천 명에 이르는 회원을 모집한 뒤 부부 또는 애인 간 성관계 상대를 교환하는 '스와핑'을 주선한 인터넷 사이트 '부부플러스'가 또 다시 적발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유모(39)씨는 지난 2005년 회원 5천명을 모아 스와핑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 '부부플러스'를 운영하다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자마자 폐쇄됐던 '부부플러스'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부활시켜 운영을 시작했다. 유씨가 처음 구속됐을 때도 회원 수는 5천 명이나 됐지만 올해 5월 다시 적발될 당시 회원 수는 유료회원 1천100명을 비롯해 8천 명을 넘어섰다.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포함된 회원들은 자신들의 성행위 사진이나 스와핑 경험담을 이 사이트에 올려가며 스와핑 상대방을 찾았다.

많을 땐 8쌍 16명에 이르는 남녀가 도시 근교로 스와핑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일부 부부는 같이 데리고 간 자녀들을 먼저 재운 뒤 스와핑을 하는 '도덕 불감증'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운영자 유씨를 구속기소하고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사진과 글을 올린 회원 53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오늘 최고 100㎜ 비

4호 태풍 '마니' 북상

10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최고 1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지방은 9일 오후 4시를 기해 고흥·여수·완도에 호우주의보, 광주·전남 전 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는 12시간 강우량이 8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0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40~100㎜비가 오겠다"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9일 새벽 3시께 괌 남쪽 약 67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4호 태풍 '마니'(MAN-YI)가 북북서 방향으로 시속 36㎞로 이동 중이다.

'마니'는 현재 ▲중심기압 995hpa ▲최대 풍속 시속 65㎞ ▲강풍 반경 250㎞에 이르는 소형급 태풍이지만, 오는 12일 오전께 ▲최대 풍속 시속 148㎞ ▲강풍 반경 450㎞의 중형급 태풍으로 세력을 확장해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 840㎞ 부근 해상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마니'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오는 12일 이후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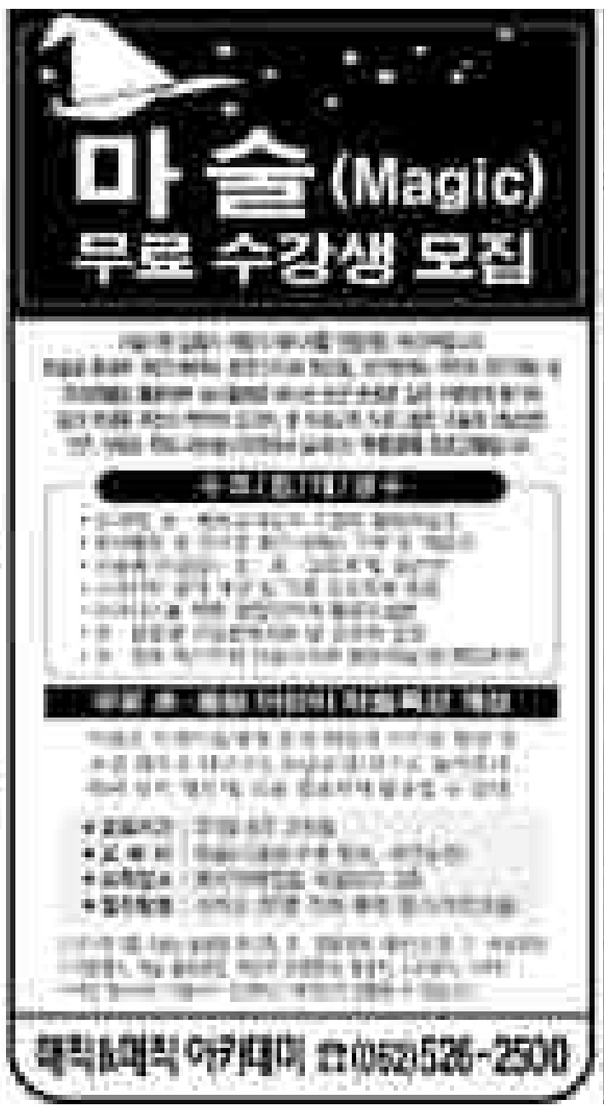
'마니'는 홍콩에서 해협이름을 따 제출한 이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리산 1,916.77m 측량 결과 1.77m 높아져

지리산 높이가 알려진 것보다 1.77m 더 높은 1천916.77m로 측량됐다.

함양군은 9일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출장소와 합동조사팀을 만들어 GPS(위성항법장치) 측량기를 사용해 천왕봉과 하봉, 중봉 등의 위치와 높이를 측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측량결과 천왕봉의 높이는 1천916.77m로 조사됐으며 하봉은 1천781m, 중봉은 1천874m였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적전문가와 GPS측량기를 사용한 측량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